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15)

- 태안군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이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태안군(泰安郡)은 1914년의 행정 개편에서 서산군·태안군·해미군이 합쳐져 서산군으로 되었다가, 1989년에 다시 태안군으로 분리(分離)·복군(復郡)되었다.

태안지역은 마한의 신소도국(臣蘇塗國)이 있었다고 하며, 백제의 근초고왕 때 백제권에 들어가 성대혜현(省大兮縣)이 되었고, 통일신라에서는 경덕왕 16년(757)에 성대혜현이 소태현(蘇泰縣 또는 蘇州)으로 바뀌면서 부성군이 거느리는 현이 되었고, 고려시대에는 현종 9년(1018)에 운주(運州)의 임내에 속하게 되었다. 충렬왕 때에 소태현 출신인 환관李大順이 원나라 왕실의 총애를 받으면서 고려에 압력을 가하여 태안군(泰安郡)으로 승격시키고 고을에 부임하는 수령을 지군사(知郡事)로 격상시켰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 13) 군현제도의 개편으로 종4품의 군수가 부임하는 태안군이 되어 내려오다가, 1895년에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홍주부 태안군이 되었고, 1896년의 13도제하에서는 충청남도 태안군(4등군)으로 편제되었다가, 1914년에 해미군과 함께 서산군에 통합되었다. 이후 1983년에 보령군 오천면 삼시도리 일부(내파수도, 외파수도, 외도)를 서산군 안면읍에 편입하였고, 1989에 서산군이 서산

시·서산군·태안군으로 나뉠 때, 태안읍·안면읍·고남면·남면·근흥면·소원면·원북면·이원면으로 태안군이 설치되었다.